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균 의원

“보조금 집행 정상화되는 계기 마련해주길”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18일 열린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은 반드시 갖춰져야 할 요소”라고 밝힌 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원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들어났듯이 물품 구매가격 비교견적 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 또는 불품 구매시 검수를 하고 검수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검수사진을 중복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어 적절한 구매가격 결정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강북구 체육회 공식입장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차량유지비중 주유비 부분에 대해 “차량운영비 중 주유비를 6대의 직원 개인 차량에 지출해도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교통비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도 않고 인지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한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만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사용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출장을 했다는 것이고, 참고인 진술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어서 보조금 지출에 문제, 부정수령 등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의 주장대로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유류대 지출이 허위사실이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보조금 유용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주무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사업목적과 성격, 예산지출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사용행태도 매우 심만스러웠지만,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도와 점검을 했는지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의 부실하고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체육회 사태,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 되는 계기 돼야

이 용 균 의원

(더불어민주당/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이용균 의원은 1월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써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원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강북구체육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물품 구매가격 비교견적 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 또는 불품 구매 시 검수를 하고 검수사진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검수사진을 중복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적절한 구매가격 결정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강북구 체육회에서는 차량운영비 중 주유비를 6대의 직원 개인 차량에 지출해도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교통비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도 않고 인지하



▲ 이용균 의원.

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교통비 지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지출방법(차량, 택시, 버스 등), 활동내용(구체적 기재), 운행내용(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운행거리, 사용자, 차량번호(자가운전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만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예산은 1,800만 원이었으며, 체육서비스 사업은 강북구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관내 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교통비 보조의

성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출장을 하였다는 것이고, “점검이라 하는 것은 직접 가서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다양한 보조금 지출에 문제, 부정수령 등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북구체육회의 주장대로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유류대 지출이 허위사실이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보조금 유용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사업목적과 성격, 예산지출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줄 것과 감사과에서는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도와 점검을 했는지 감사에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균 의원은 그 동안의 부실하고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이용균 의원, 내일 감사로 '보조금 정상화' 계기 마련



▲ 이용균 강북구의원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부실 집행과 관련해 강북구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예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이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사용 행태도 매우 실망이었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도와 점검을 했는지 이번 감사에서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직원들의 개인 차량에도 주유할 수 있다는 강북구체육회의 해명에 대해 "직원들의 차량 주유비 내역도 교통비 지출 내역에 기재되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교통비 지출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다 해도 교통비 지출내역 서류가 문제가 있어 어떤 경우든 보조금 유용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그동안 부실하고 부적절한 집행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집행 정상화 계기 마련



지난 18일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현장중심 강북구 실현을 위해 불

필요한 의견관행을 없애고 주민이 주인공 되는 행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자'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

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이번 강북구체육회 행정사무 조사에서도 들어났듯이 물품 구매가격 비

교전적 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 또는 물품 구매시 검수를 하고 검수사진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검수사진을 중복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러한 내

용들을 보았을 때 적절한 구매가격 결정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며 강북구 체육회 공식입장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차량유지비용 유류비 부분에 대해 설명해 나갔다.

이 의원은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자료에는 교통비-순찰활동, 사업진행, 단체인 운영 등을 위해 유류대, 교통카드 충전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교통비라고 되어 있다. 집행등록 첨부서류는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전표, 교통비지출내역"이라고 밝히고 "강북구 체육회에서 주장은 차량운영비 중 주유비를 6대의 직원 개인 차량에 지출해도 된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통비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도 않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출장결과보고서의 내

용은 출장을 하였다는 것이고 참고인의 진술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확인하고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사업목적과 성격, 예산지출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사용 행태도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도와 점검을 했는지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부실하고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지난 18일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상암동, 송천동, 삼각산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집행 정상화’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용균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은 반드시 갖춰져야 할 요소이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원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불품 구매가격 비교견적 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 또는 불품 구매시 검수를 하고 검수사건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검수사건을 중박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어 적절한 구매가격 결정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 체육회 공식입장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차량유지비 중 유류비 부분에 대해 “차량운영비 중 주유비를 8대의 직원 개인 차량에 지출해도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교통비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도 않고 인지하지 못했나” 지적한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만 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주민의 할세인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2018년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출장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출장을 했다는 것이고, 참고인 진술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어서 보조금 지출에 문제, 부정수령 등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의 주장대로 차량운영일지가 허위로 작성했다면 차량운영일지에 따른 유류비 지출이 허위사실이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보조금 유용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주무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사업목적과 실적, 예산지출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용균 의원은 “이번 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사용행태도 매우 심각스러웠지만, 감부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재대로 지도와 점검을 했는지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무실하고 부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영일 기자